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총력 대응

✎ 임영한 기자 | ⓒ 승인 2026.03.31 10:29

'25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을 통한 시군별, 업종별 맞춤형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31일 '26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보령지청의 '25년 임금체불액은 75억 원으로 전년 119억원 대비 44억원(△36.9%) 감소했고, 청산율도 64.62%로 전년 56.32% 대비 8.3%p 상승했다.

시군별 체불액은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순으로 많았고, 청산율은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고, 청산율은 운수창고업이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낮았다.

보령지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는 체불액이 많은데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시군별·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제로 개편·운영하고,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체포 등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전했다.



임영한 기자 younghan2679@naver.com

보령지청, 임금체불 근절 총력 대응

이재인 기자 | 승인 2026.03.31 12:43

- '25년 체불액 36.9% 감소, 청산율 상승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31일 '26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보령지청의 '25년 임금체불액은 75억 원으로 전년 119억 원 대비 44억 원(△36.9%) 감소했으며, 청산율은 64.62%로 전년 56.32% 대비 8.3%p 상승했다.

지역별 체불액은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순으로 많았고, 청산율은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체불액이 많았으며, 청산율은 운수창고업이 가장 낮고, 이어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낮았다.

보령지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체불액이 많고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도
소매업·건설업·어업·농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관장이 직접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지역별 전담팀제를 운영하
고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체포 등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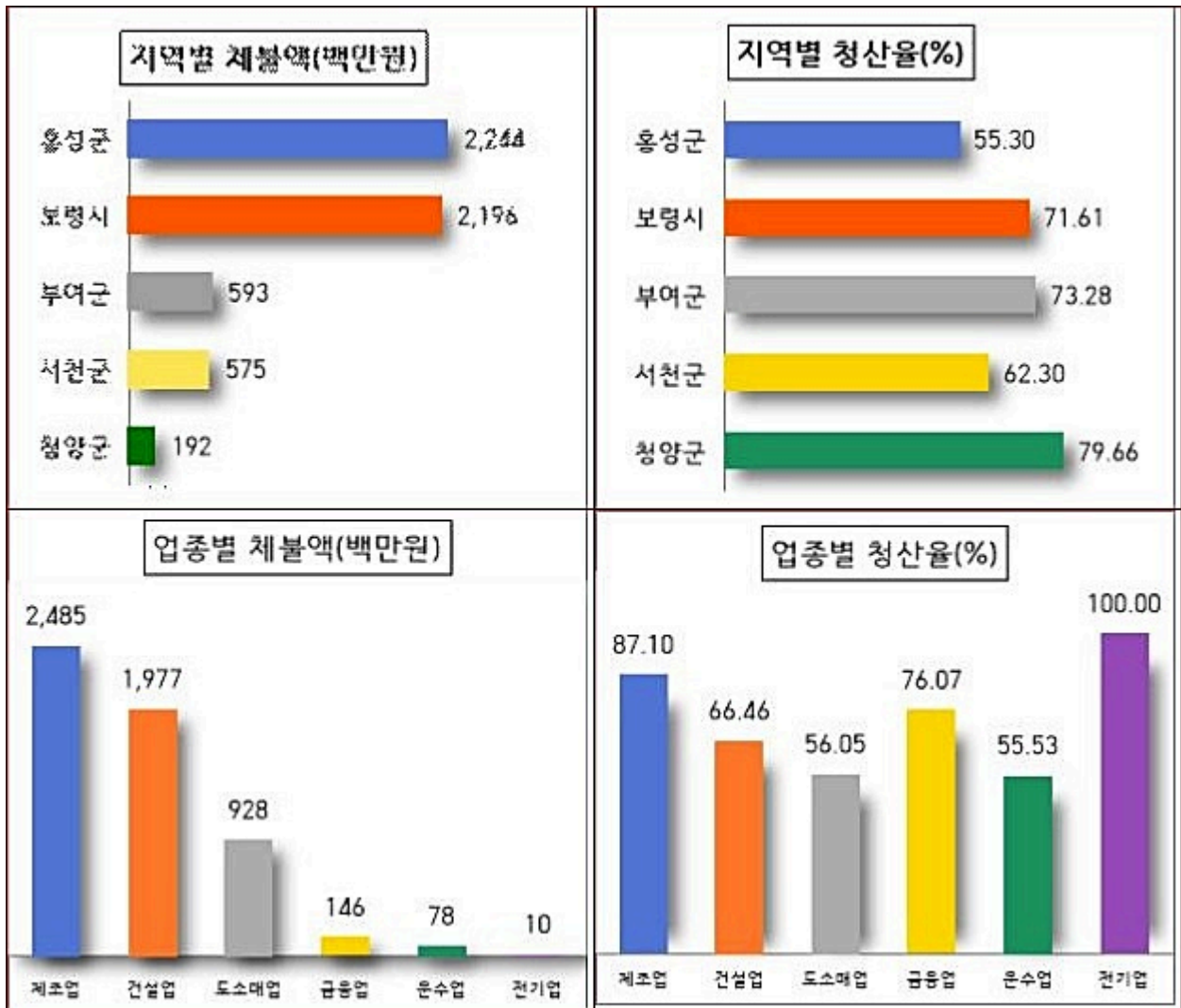
이재민 기자

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예방 등 청산 총력

충남=이진영 기자 | 승인 2026.03.31 14:10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2026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별 및 업종별 체불액, 청산율(기타 시군/업종 제외)>



보령지청의 '25년 임금체불액은 75억원으로 전년 119억원 대비 44억원(△36.9%) 감소했고, 청산율도 64.62%로 전년 56.32% 대비 8.3%p 상승했다.

시군별 체불액은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순으로 많았고, 청산율은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고, 청산율은 운수창고업이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낮았다.

보령지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는 체불액이 많은데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시군별·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제로 개편·운영하고,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체포 등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총력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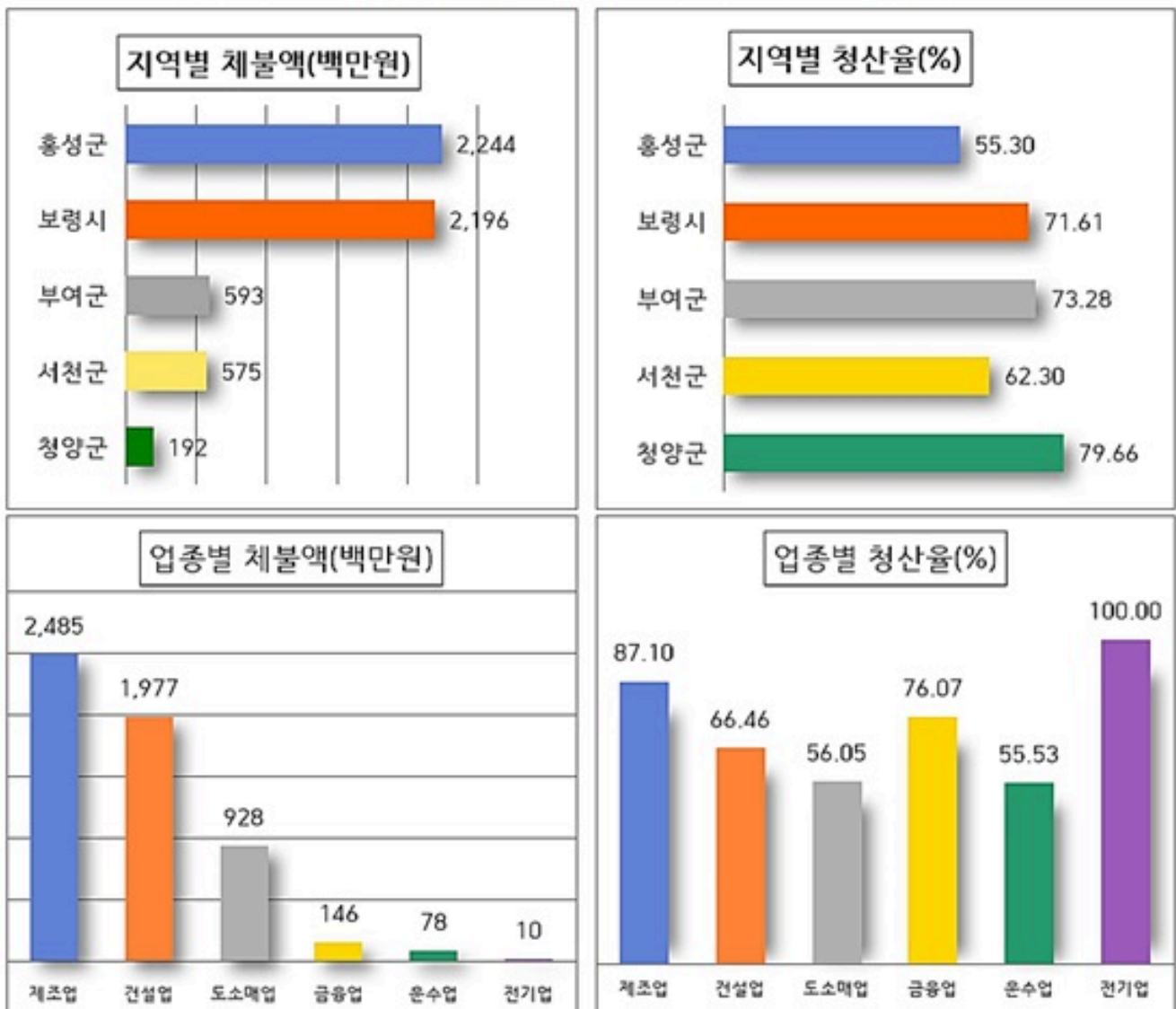
2025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을 통한 시·군별, 업종별 맞춤형 대책 추진

기사입력시간 : 2026/03/31 [10:26:00]

대전신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31일 2026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별 및 업종별 체불액, 청산율(기타 시·군/업종 제외)>



보령지청의 2025년 임금체불액은 75억 원으로 전년 119억 원 대비 44억 원(△ 36.9%) 감소했고, 청산율도 64.62%로 전년 56.32% 대비 8.3%p 상승했다.

시·군별 체불액은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순으로 많았고, 청산율은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고, 청산율은 운수창고업이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낮았다.

보령지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는 체불액이 많은데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시·군별,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제로 개편·운영하고,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체포 및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

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총력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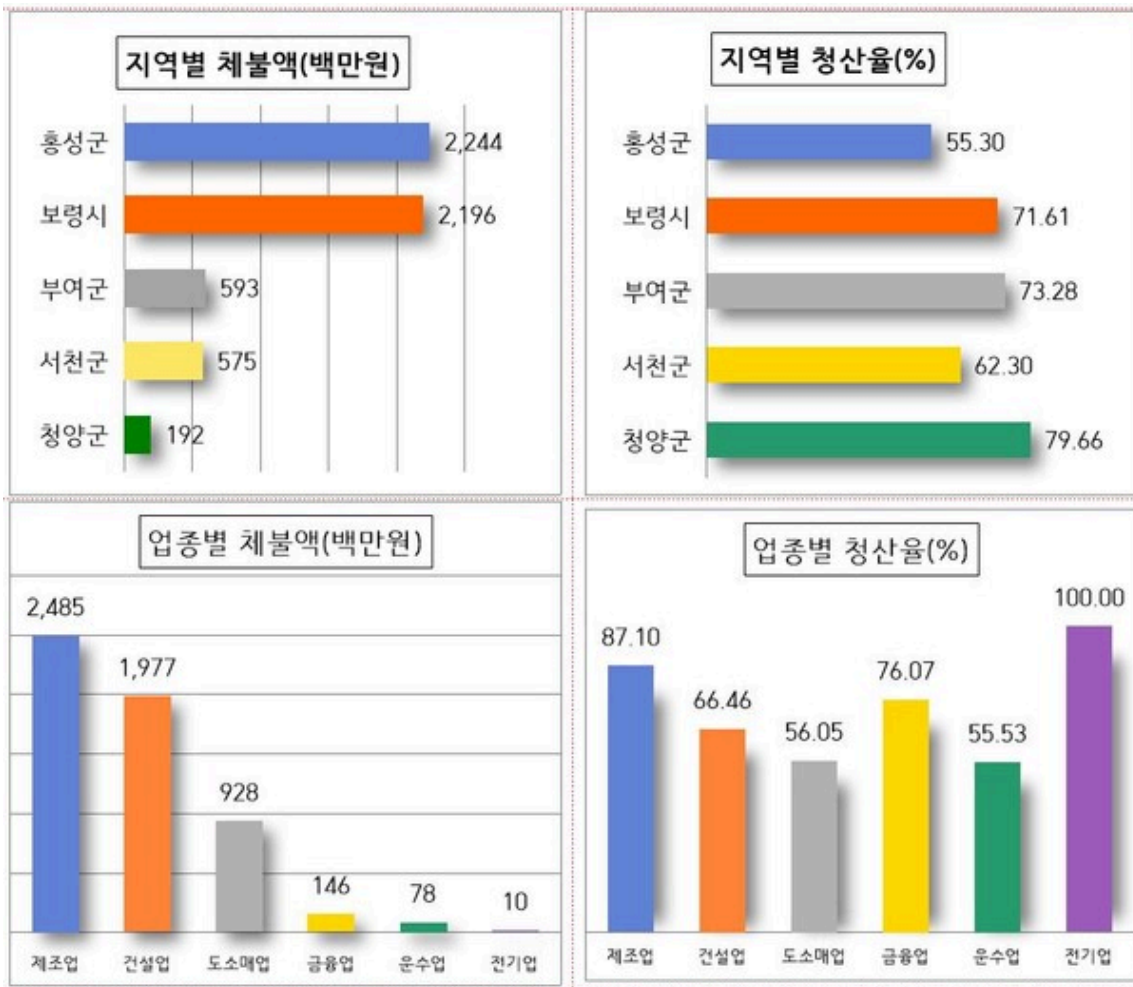
✎ 이성필 기자 | ⓒ 승인 2026.03.31 16:44

‘25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을 통한 시군별, 업종별 맞춤형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31일 '26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별 및 업종별 체불액, 청산율(기타 시군/업종 제외)>



보령지청의 '25년 임금체불액은 75억원으로 전년 119억원 대비 44억원(△36.9%) 감소했고, 청산율도 64.62%로 전년 56.32% 대비 8.3%p 상승했다.

시군별 체불액은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순으로 많았고, 청산율은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고, 청산율은 운수창고업이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낮았다.

보령지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는 체불액이 많은데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시군별·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제로 개편·운영하고,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체포 등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총력 대응

양창용 | 승인 2026.03.31 14:06

'25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을 통한 시군별, 업종별 맞춤형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31일 '26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보령지청의 '25년 임금체불액은 75억원으로 전년 119억원 대비 44억원 (△36.9%) 감소했고, 청산율도 64.62%로 전년 56.32% 대비 8.3%p 상승했다.

시군별 체불액은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순으로 많았고, 청산율은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고, 청산율은 운수창고업이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낮았다.

보령지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는 체불액이 많은데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시군별·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제로 개편·운영하고,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체포 등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창용

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총력 대응

✎ 이승호 기자 | ⓒ 승인 2026.03.31 19:15

'25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을 통한 시군별, 업종별 맞춤형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31일 '26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보령지청의 '25년 임금체불액은 75억원으로 전년 119억원 대비 44억원(△36.9%) 감소했고, 청산율도 64.62%로 전년 56.32% 대비 8.3%p 상승했다.

시군별 체불액은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순으로 많았고, 청산율은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고, 청산율은 운수창고업이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낮았다.

보령지청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는 체불액이 많은데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을 중심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어업”, “농업”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시군별·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제로 개편·운영하고,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체포 등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ceobgnews@naver.com

관할 5개 지자체 임금체불액 감소, 청산율은 상승

뉴스서천 | 승인 2026.04.02 08:41 | 호수 1281

홍성군 체불액 가장 많아... 청양군 청산율 최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할 5개 지자체의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체불액 청산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령지청 관할인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등 5개 시·군의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75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6.9%인 44억 원이 줄었다.

지역별 체불액을 살펴보면, 홍성군이 22억 4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보령시 21억 9600만 원, 부여군 5억 9300만 원, 서천군 5억 7500만 원, 청양군 1억 92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5개 시·군의 지난해 임금 체불 청산율은 평균 64.62%로, 2024년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청산율은 청양군이 79.66%로 가장 높았으며, 부여군 73.28%, 보령시 71.61%, 서천군 62.30%, 홍성군 55.30% 순이었다.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이 24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다음으로 건설업 19억 7700만 원, 도소매업 9억 2800만 원, 금융업 1억 4600만 원, 운수업 7800만 원, 전기업 1000만 원 순이었다.

업종별 임금체불 청산율은 전기업이 100%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은 87.10%, 금융업 76.07%, 건설업 66.46%, 도소매업 56.05%, 운수업 55.53% 순으로 나타났다.

보령지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불금액이 많고 청산율이 낮은 홍성군과 도소매업, 건설업, 어업, 농업을 핵심 대응대상으로 선정했다.

기관장은 시·군별 및 업종별 협회,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제로 개편해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고, 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강화한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지역별 전담팀 운영과 강제수사 확대 등 지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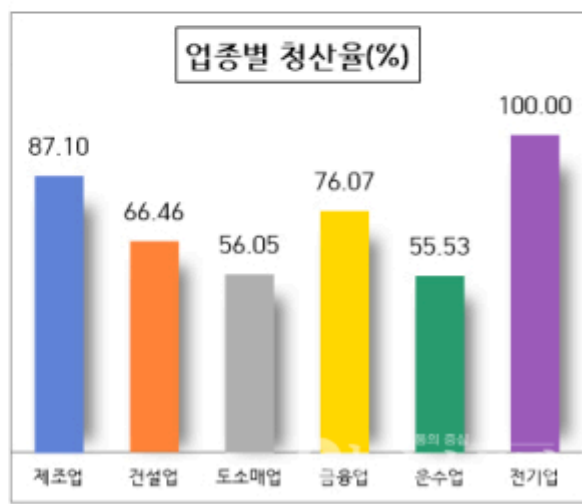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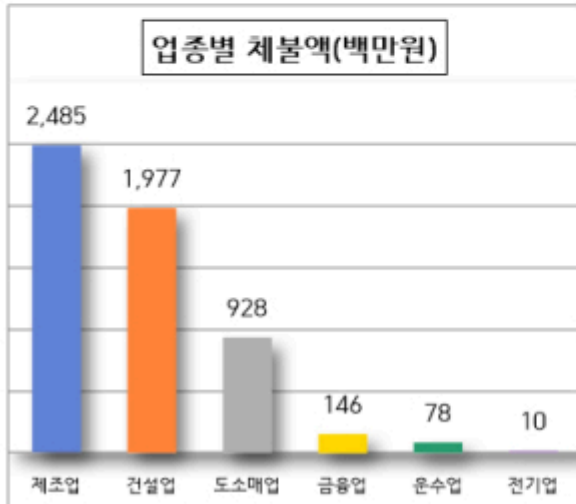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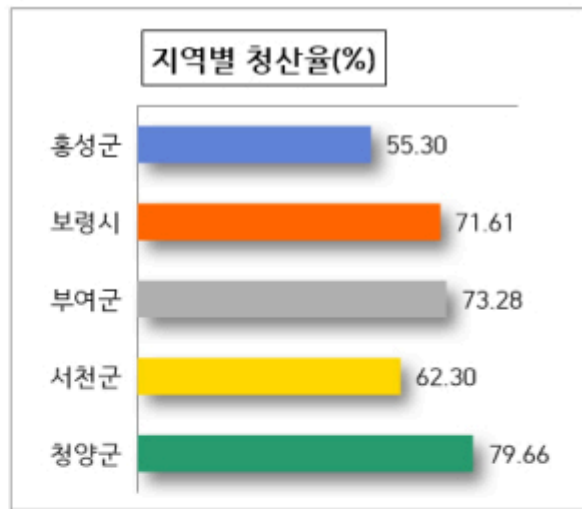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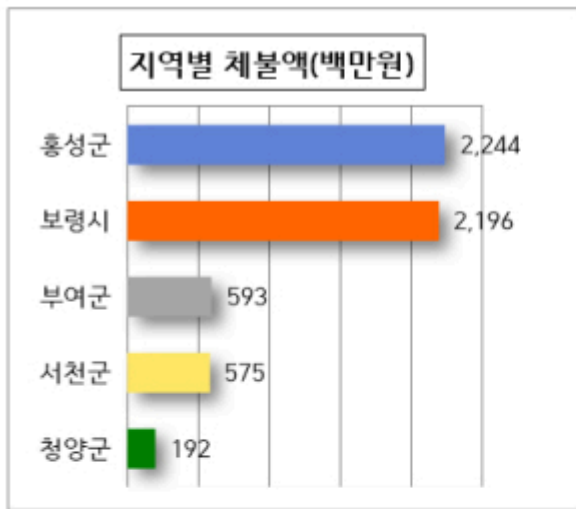


뉴스서천

HOME > 뉴스 > 종합

지난해 임금체불 75억 흥성-보령-부여-서천-청양 순

정진영 | 승인 2026.03.31 17:12



지난해 흥성군.보령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 임금체불액은 75억 원으로 2024년 119억 원 대비 44억 원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난해(2025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 관할 지역 가운데 흥성군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홍성군.보령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 임금체불액은 75억 원으로 2024년 119억 원 대비 44억 원이 감소했다.

청산율로 64.62%로 3.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홍성군이 가장 많았고, 보령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 순이다.

지역별 청산율은 청양군이 79.66%로 가장 많았고, 부여군 73.28%>보령시 71.61%>서천군 62.30%>홍성군 55.30%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청산율을 전기업이 100%를 차지했다.

보령지청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올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시군별.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총액 감소를 목표로, 조직을 지역별 전담팀 제로 개편.운영하고,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체포 등 강제수사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영 기자